

# 高麗再雕大藏目錄考

鄭 駉 謨\*

## <목 차>

- 緒 論
- I. 再雕大藏經板의 雕造背景
  - A. 初雕大藏經板의 焚滅과 符仁寺
  - B. 大藏經板再雕의 動機
- II. 大藏經板再雕의 經緯
  - A. 大藏都監 및 分司大藏都監의 設置
  - B. 大藏經校勘 및 底本의 筆寫
  - C. 大藏經板의 再雕
- III. 大藏經板의 海印寺移運
  - A. 移運時期
  - B. 移運經路
- IV. 再雕大藏目錄의 構成
  - A. 初雕大藏目錄과 再雕大藏目錄
  - B. 再雕大藏目錄과 唐宋系의 佛典目錄
- 結 論

## 緒 論

高麗再雕大藏目錄은 현재 海印寺의 大藏殿에 소장되어 있는 高麗大藏經板의 內容을 가장 集約的으로 또한 가장 體系的으로 명확하게 파악할수 있는 媒介資料라고 말할수 있다. 또한 1976년에 東國大學校譯經院에서 高麗大藏經(影印本)을 발행할 당시에 目錄을 새로 편찬하여 이에 대한 總目錄과 解題 및 索引까지 겸해서 방대한 冊子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目錄을 통해서만 개개의 經典을 檢索하고 그 內容概要를 파악하는 데 한해서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며 高麗再雕大藏經板의 雕造背景과 그 經緯 및 高麗大藏經의 구성내용과 體制 등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한편 高麗의 初雕大藏目錄에 대해서는 이미 研究된 바<sup>1)</sup> 있으나 再雕의 大

\* 中央大學校 教授

1) 鄭駉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第2輯, 1987, pp. 3~108 참조.

藏目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國內外的으로 研究된 바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高麗再雕大藏目錄에 대한 研究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着眼하여 本考에서는 再雕大藏經板의 雕造背景과 그 經緯, 大藏經板의 海印寺移運時期와 經路, 再雕大藏目錄의 구성내용과 體制 등을 밝혀 보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本考의 研究對象은 기본적으로 再雕本의 大藏目錄에 限한다. 그러나 調査와 分析의 범위는 이 再雕大藏目錄과 밀접하게 관련된 諸史料, 이미 筆者에 의해서 復元된 初雕大藏目錄과 現存하는 再雕大藏目錄, 守其 등이 撰한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智昇이 撰한 開元釋教錄, 圓照가 撰한 續開元釋教錄과 貞元新定釋教目錄, 恒安의 續貞元釋教錄, 趙安仁 등이 撰한 大中詳符法寶錄, 宋 景祐 3(1036)年에 呂夷簡 등이 撰한 景祐新修法寶錄 등도 직접적인 對象이 된다.

研究方法로서는 우선 再雕大藏經板의 雕造와 관련된 歷史的記錄 및 佛敎學分野의 先行研究文獻을 섭렵해서 再雕大藏經板이 完成되기 까지의 歷史的背景과 그 經緯를 밝히고, 再雕된 大藏目錄과 校正別錄을 토대로 하여 위에서 열거한 唐宋代의 주요 佛典目錄에 수록된 書目과 일일이 對照·分析하여 각각 相互間의 關係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高麗大藏經(影印本) 全帙을 통해서 각 經卷에 나타난 刻板의 刊記를 조사하여 大藏經刻板의 具體적인 進行情況과 上향을 밝히고자 한다.

## I. 再雕大藏經의 雕造背景

### A. 初雕大藏經板의 焚滅과 符仁寺

高麗朝의 初雕大藏經은 顯宗時에는 開城의 玄化寺에서 雕刻하여 여기에 所藏되었던 것으로 보이며<sup>1)</sup> 文宗時에는 開城의 開國寺와 歸法寺에서 刻成하여 興王寺의 大藏經殿에 顯宗時의 刻板과 함께 所藏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

1) 開城玄化寺碑陰記, 韓國金石全文, 許興植編著,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中世上 p.450. 참조.

인다.<sup>2)</sup>

그러나 高麗史에 보면 “顯宗때의 板本은 壬辰年(1232)의 蒙古兵亂으로 불타버렸다”<sup>3)</sup>는 기록이 있고 丁酉年(1237)에 李奎報가 쓴 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에는 “符仁寺에 所藏된 大藏經板本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버렸다”<sup>4)</sup>고 하는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開城의 興王寺의 大藏經殿에 소장되었던 初雕의 大藏經板이 壬辰年(1232) 이전 어느 時期에 어떻게 해서 符仁寺에 옮겨져서 保存되어 있었는지 현재까지 이를 밝힐수 있는 根據資料가 없다.

한편 符仁寺는 大邱直轄市의 東北쪽 達城郡公山面에 속하는 八公山에 있었던 寺刹인데 辛卯(1231)년과 壬辰(1232)년 사이에 蒙古兵이 嶺南地方을 侵掠한 사실을 전하는 記事가 高麗史나 高麗史節要 및 기타의 史料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아마도 蒙古兵의 侵入이 빈번했던 몇 10年 사이에 歷史的인 기록이 부분적으로 缺如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李奎報의 新序詳定禮文跋尾에 보면 “江華島로 遷都할 때 禮官이 당황하여 그대로 두고 갔기 때문에 亡失했다”<sup>5)</sup>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正史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최근 文暉鉉 등은 “高宗 19년(1232) 蒙古 제 2차의 침입으로 撤里台(撤禮塔)의 大軍이 고리에 침입하여 원수 사리타이는 水原處仁城에서 고리의 金允候장군에 사살되고 副帥 鐵哥가 인솔하는 元軍이 大邱 公山에 쳐들어와 符仁寺의 大藏經을 불질렀다”<sup>6)</sup>고 하는데 그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符仁寺라는 寺名을 가진 寺刹은 없고 大邱의 八公山에는 夫人寺라는 同音異字의 寺刹이 있는데 이 두 寺刹은 모두 寺蹟誌가 전하지 않아서 그 創建時期나 寺刹의 沿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1986년에 慶北大學校 尹容鎮교수 등이 조사한 「夫人寺地表調查報告書」<sup>7)</sup>와 1987년에 慶

2) 高麗史 卷 10 宣宗 4年 2月, 3月, 4月條 참조.

3) 高麗史 卷 24, p.3 A(高宗 38(1251)年 9月 壬午條.

4) 東國李相國全集 卷 25 p.19A.

5) 東國李相國後集 卷 11.

6) 文暉鉉. 八公山; 八公山史蹟地表調查報告書. 慶北大學校. 1987, p. 76.

7) 尹容鎮. 夫人寺地表調查報告書. 大邱, 慶北大學校博物館, 1986.

北大學校 文暉鉉교수 등이 조사한 「八公山史蹟地表調査報告書」<sup>8)</sup>를 통해서 이에 대한 概要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尹容鎮교수는 그의 調査報告書에서 高麗時代와 李朝時代의 史料에 수록된 단편적인 기록과 夫人寺주변의 地表調査를 토대로 하여 현재 大邱의 八公山에 있는 夫人寺가 곧 高麗時代의 符仁寺였음을 밝히고 있다. 尹容鎮교수의 조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寺刹名에 대해서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李相國集, 鄭道傳의 三峯集 등 高麗時代의 史料에는 초기부터 夫人寺로 표기된 寺名은 보이지 않고 符仁寺라는 寺名만이 보인다.

둘째로 夫人寺의 위치에 대해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大邱府邑誌에서는 八公山에 있다고 한 반면 高麗史에서는 東京(慶州)관할에 있다고 했고, 鄭道傳의 三峯集에서는 大公山(八公山)에 있다고 했으며 高麗史節要에서는 永川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의 八公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廢寺址와 관련해서 八公山에는 현재 夫人寺는 그 寺名과 寺刹이 존재하고 있는데, 符仁寺라는 寺名은 전혀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廢寺址로서도 전해지는 곳이 없다. 八公山內에서는 寺名이 전하지 않는 高麗時代의 廢寺址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規模가 작고 夫人寺를 제외하고는 巨刹이었음을 立證할 수 있는 石造物이나 넓은 寺域을 갖는 廢寺址는 찾아볼 수 없다.

네째로 寺刹의 規模와 관련해서 보면 현재 八公山內에서 寺域의 規模나 石造物의 存在의 면에서 高麗時代의 巨刹이었다고 볼 수 있는 寺刹은 현존하는 桐華寺와 지금의 夫人寺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桐華寺는 新羅時代부터 그 寺名과 더불어 寺院이 지금에 이르고 있어서 符仁寺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夫人寺의 경우는 夫人寺로 표기된 寺名은 비록 朝鮮時代부터 기록되고 있다고는 하나 寺刹內外에 있는 훌륭한 石塔 石燈 등의 石造物이나 웅대한 伽藍築台 등의 遺構를 보아 羅末麗初부

8) 文暉鉉. 八公山; 八公山史蹟地表調査報告書. 大邱, 慶北大學校, 1987.

더 寺刹로서 경영되었던 寺院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寺刹이 점차 쇠퇴하여 지금처럼 寺域이 축소되었고 夫人寺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하여 尹容鎮교수는 “이러한 寺址의 遺構나 石造物은 위에서 말한 史料에서 풍기는 符仁寺의 規模나 比重에 견주어 國家的寶物인 大藏經板을 보관할 寺院이 될수 있음을 인정할수 있다”<sup>9)</sup>는 것이다.

이에 첨가해서 文暻鉉교수도 그의 「八公山史蹟地表調查報告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의 夫人寺는 옛 符仁寺 경내의 뒷쪽 山 밑에 자리잡고 있는 조그만 절이다. 앞의 광활한 폐허인 옛 大藏經[板]을 봉안했던 藏經閣 建物址를 위시하여 무수한 殿閣址, 礎石, 長臺石 등 石材가 널리었고 옛 웅장했던 大伽藍의 規模를 말해준다”<sup>10)</sup>

한편 이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筆者가 夫人寺의 寺址를 踏査한바 현재(1989. 7. 9) 여기에서 大邱大學校의 博物館長 李明植교수의 주관하에 夫人寺址의 遺蹟을 발굴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發掘된 遺蹟中の 한 瓦片에는 “夫仁寺觀音殿”이라는 銘文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이 동일한 寺刹에 대하여 歷代로 “符仁寺” 혹은 “夫人寺” 혹은 “夫仁寺” 하는 同音異字로 나타난 이들 寺刹名中에서 어느것이 가장 정확하냐 하는 판단은 뒤로 미루고 이 寺蹟址가 바로 高宗 19(壬辰)年에 蒙古兵에 의해서 焚滅된 高麗初雕大藏經板이 소장되었던 寺刹이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 B. 大藏經板再雕의 動機

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符仁寺에 所藏되었던 高麗初雕의 大藏經板은 壬辰年(1232)의 蒙古兵亂으로 불타버렸고 蒙古의 侵掠은 아직도 지속되므로 初雕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佛力을 빌어서 外敵의 侵入을 막고 國家의 安全을 祈願하기 위해서 再雕大藏經板을 雕造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李奎報의 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 가운데서 엿볼 수 있다.

9) 尹容鎮, 夫人寺地表面調查報告書. 大邱, 慶北大學校, 1986, p. 20.

10) 文暻鉉, 八公山; 「八公山史蹟地表面調查報告書」, 大邱, 慶北大學校, 1987, p. 241.

“그들(韃靼)이 경유하는 곳에는 佛像과 梵書를 마구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符仁寺에 所藏된 大藏經板本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아, 여러해를 걸려서 이룬 功積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으니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宰執과 文武百官 등과 함께 큰 誓願을 발하여 이미 旬當官司를 두어 그 일을 경영하게 하였고, 따라서 맨 처음 草創한 동기를 考察하였다더니 옛적 顯宗 2년에 契丹主가 크게 軍事를 일으켜 와서 征伐하자 顯宗은 南쪽으로 避亂하였는데 契丹軍士는 오히려 松岳城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顯宗은 이에 여러 臣下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誓願을 발하여 大藏經板本을 板刻해 이룬 뒤에 契丹軍士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어찌 그때에만 契丹軍이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韃靼은 물러가지 않겠습니까……원하옵건대……완악한 오랑캐로 하여금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國土를 밟는 일이 없게 하여, 戰爭이 그치고 中外가 平安하며……나라의 國運이 萬歲도록 유지되게 해주신다면……弟子들은 마땅히 노력하여 드디어 法門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sup>11)</sup>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麗大藏經再雕의 동기가 오로지 佛法을 崇奉하는 맑고 바른 마음에서 精誠을 다하여 國家와 民族을 守護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II. 大藏經板 再雕의 經緯

### A. 大藏都監 및 分司大藏都監의 設置

符仁寺에 소장되었던 高麗初雕大藏經板이 蒙古兵에 의해서 焚滅되었던 바로 그해인 高宗 19(壬辰, 1232)年 6월에 高麗王朝는 蒙古의 兵患을 피하여 江華로 遷都하게 된다.<sup>1)</sup>

그리고 高宗 23(丙申, 1236)년에는 大藏經板의 再雕事業을 전담하기 위하

11) 東國李相國全集. 卷 25, p. 18B, 19A. B. 20A.

1) 高麗史 卷 23 高宗 19年 6月條(p. 463B)

〈丑 1〉

## 分司大藏都監의 藏經刻板狀況

函次	經典名 및 卷數	刻板卷數	年度	備考
毀	無上依經二卷外 22 經 24 卷	24	癸卯(1243)	
競	十住毗婆娑論十卷	10	〃	
事	大莊嚴論十卷	10	〃	
君	大莊嚴論五卷	5	〃	
	攝大乘論三卷	3	〃	
	順中論二卷	2	〃	
履~清	中阿含經六十卷中卷 1-20	20	〃	
安	生經五卷	5	〃	
	義足經二卷中卷 1	1	〃	
定~終	正法念處經七十卷中卷1-10 21-30 62-70	29	〃	
籍	本事經七卷	7	〃	
	興起行經二卷	2	〃	
	首迦長者報差別經十卷	10	〃	
彩	釋迦譜五卷	5	〃	
	釋迦方志二卷	2	〃	
	釋迦氏譜一卷	1	〃	
仙~傍	經律異相五十卷	50	〃	
甲~對	諸經要集二十卷中 17 卷	17	〃	
楹	出三藏記十卷	10	〃	
肆	出三藏記五卷	5	〃	
	衆經目錄七卷	7	〃	
左~明	續高僧傳三十卷中 27 卷	27	〃	
典~群	廣弘明集三十卷中 18 卷	18	〃	
學~仕函	摩訶僧祇律四十卷中 卷11-20	10	甲辰(1244)	(260 卷)
猶函	毗尼毗婆娑九卷	9	〃	
投~規函	阿毗曇毗婆娑論六十卷	60	〃	
藥函	雜阿毗曇心論七卷	7	〃	
都函	甘露味論二卷	2	〃	
邑	尊婆須蜜菩薩所集論七卷	7	〃	
二	解脫通論十二卷	12	〃	
筵	歷代三寶記十卷	10	〃	
設	衆經目錄五卷	5	〃	
霸~何	法苑珠林傳一百卷中 88 卷	88	〃	
起	給孤獨長者女得度因緣經三卷	3	〃	

函次	經典名 및 卷數	刻板卷數	年 度	備 考
願	大集法門經二卷	2	甲辰(1244)	
	集諸寶東上義論二卷中 卷下	1	"	
	光明童子因緣經四卷中 卷1, 3, 4	3	"	
	入無分別法門經一卷	1	"	
	寶帶陀羅尼經一卷	1	"	
	金身陀羅尼經一卷	1	"	
	六十頌如理論一卷	1	"	
	金剛場莊嚴般若波羅蜜多教中分一卷	1	"	
用	一切秘密東工名義大教王儀軌二卷	2	"	
	金光明經四卷中 卷3	1	"	(227 卷)
精	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中 卷 49	1	乙巳(1245)	1 卷
	" 卷 51	1	丙午(1246)	
勒~銘	新華嚴經論四十卷中 20 卷	20	"	21 卷
	御製逍遙詠十一卷	11	丁未(1247)	
輕	御製緣識五卷	5	"	
	廣釋菩提心論四卷	4	"	20 卷
用			(總 51 經 539 卷)	

※ 이상은 高麗大藏經影印本の 刊記에 나타나 있는 것만을 조사한 것이다.

여 江華에 大藏都監을 설치하고 南海에는 分司大藏都監을 설치하여 이 事業을 분담케 하였다<sup>2)</sup>고 한다. 그런데 완성된 大藏經板의 각卷末에 새겨진 刊記에는 刊行年과 함께 「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또는 「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刊記를 조사해 보면 分司都監에서 刻板한 經典은 癸卯(高宗 30, 1348)年부터 나타나서 丁未(高宗 34, 1247)年까지 이어지며<sup>3)</sup> 大藏經補遺板의 刻板이 甲辰(高宗 31, 1349)年부터 辛亥(高宗 38, 1251)年까지 이어진다.<sup>4)</sup> 그러므로 分司大藏都監은 大藏都監의 本司가 설치된 다음 약 7年후인 癸卯(1243)年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分司大藏都監이 설치된 장소에 관해서 살펴보면 大藏經補遺目錄의

2)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pp. 78, 80.

3) <표 1>의 分司大藏都監에서의 藏經의 刻板狀況 참조.

4) 徐首生. 八萬大藏經과 佛教文化史上의 價値性 및 保存策. 고려대장경에 관한 학술발표회. 해인사고려대장경연구회. 1987, p. 48 참조.



첫머리에 있는 宗鏡錄卷 27에는 分司南海大藏監開板이라고 적혀 있고 또는 東國李相國集의 末尾에 보면 跋文中에 “이제 分司都監이 海藏의 雕造를 畢한 여가에 勅을 받들어 鑲板한 것이다. 내가 다행히 比郡에 守한지라 家藏一本으로써 讎校流通한 것이다” 하는 기록이 있고 그 밑에 辛亥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와 함께 河東郡監務 李益培와 晉州牧副使 全光宰가 列舉되어 있다. 李益培는 李奎報의 嗣孫으로 河東郡監務로서 分司都監에서 이 文集을 雕造할 때에 그 跋文에 河東郡을 分司都監의 소재지의 比郡이라고 적혀 있어서 分司都監은 河東의 比隣郡인 南海縣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sup>5)</sup>

그러므로 分司大藏都監은 晉州牧에 소속된 河東縣에 比隣한 南海島인 南海縣에 두어서 張景造조의 사업을 분담케 하였던 것이다.

分司를 南海島인 南海縣에 설치하게 된 理由는 江華島의 江都에 있는 本司와 함께 災難을 防止코자 하는 데 그 의도가 있었을 것이겠지만 藏經刻板에 사용할 木材가 풍부하고 그 材木들을 輸送하기에 편리한 島嶼地域을 선택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sup>6)</sup>

#### B. 大藏經校勘 및 底本筆寫

현재의 高麗再雕大藏經중 俊, 又, 蜜등의 3函에 入藏된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三十卷」(校正別錄)에는 각 卷首에 「沙門守其等奉勅校勘」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序跋은 전혀 없으므로 校勘의 節次나 方法은 자세히 알수 없다. 그러나 이 校正別錄은 高麗初雕藏經本인 國前本과 國後本을 비롯하여 宋本인 開寶勅板大藏經과 契丹藏經本 등을 參考對照하여 各本들의 誤錯을 訂正하고 脫漏를 補修하는 등 校正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校勘記임을 그 本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校勘에 참고로 한 資料는 이들 외에도 唐玄宗開元 18(730)년에 智昇이 撰한 開元釋教錄과 唐德宗 貞元 10(794)년에 圓照가 撰한 貞元續開元釋教錄 또는 五代南唐保大 3(945)년에 恒安이 撰한 續貞元釋教

5) 東國李相國全集, 跋尾 참조.

6)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p. 80 참조.

錄<sup>7)</sup> 등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물론 이 校正別錄은 再雕할 大藏經을 보다 올바르고 훌륭한 大藏經으로 雕造하고자 그 이전의 주요 大藏經을 토대로 相互對校하여 誤錯이나 脫漏를 바로잡기 위하여 校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므로 이 校勘은 부분적으로라도 刻板에 着手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大藏都監이 설치된 바로 다음해인 高宗 24(丁酉, 1237)년에 이미 실제로 大藏經板이 刻出되었으니<sup>8)</sup> 大藏經의 校正事業은 이보다 먼저 着手되었을 것이며 또한 校勘된 내용에 따라 底本을 筆寫해야만 그 筆寫된 底本에 따라 刻板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뒤따라서 底本이 筆寫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校勘과 底本の 筆寫는 大藏都監이 설치되었던 高宗 23(1236)년에 바로 이어서 시작되어서 大藏經再雕作業과 병행되다가 刻板이 끝난 高宗 35(戊申 1248)년 이전에 종료되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引用한 바 있는 校正別錄의 각卷首에는 「沙門守其等奉勅校勘」<sup>9)</sup>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大藏經再雕를 위한 校勘의 責任者는 분명히 守其法師<sup>10)</sup>이며 기타에도 몇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引用한 바 있거니와 東國李相國全集의 末尾에 “이제 分司都監이 海藏의 雕造를 畢한 여가에 勅을 받들어 鑲板한 것이다. 내가 다행히 比郡에 守한지라 家藏一本으로써 讎校流通한 것”이라하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刊記가 있다.

辛亥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  
校勘河東郡監務管勾學事將仕郎良醞令李益培  
錄事將仕郎軍器注簿同正張世候  
錄事將仕郎軍器注簿同正片洪湜  
副使晉州牧副使兵馬輪轄試尙書工部侍郎全光宰

7) 鄭駁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第2輯. 서울, 書誌學會. 1987, pp. 43, 44 참조.

8) 다음章 참조.

9)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三十卷.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卷 38 참조.

10) 守其法師에 대해서는 다음의 論文 참조.

吳龍燮.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研究. 書誌學研究. 創刊號. 1986, pp. 216~220.

이 記錄을 보면 李相國(奎報)과 李益培도 大藏經을 校勘한 사람들이고 張世侯와 片洪湜는 錄事(筆士)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며 全光宰는 刻板에 참여했던 한사람이라고 생각된다.

### C. 大藏經板의 再雕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高宗 23(丙申 1236)년 江華에 大藏都監을 설치하고 바로 다음해인 高宗 24(丁酉, 1237)년에는 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을 宣布<sup>11)</sup> 하는 동시에 이해부터 실제로 大藏經板의 雕造作業이 시작된다. 그리하여 이 大業은 16年동안 진행되어 高宗 38(辛亥, 1251)년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근거는 高麗史의 高宗 38(辛亥, 1251)年 9月 壬午條에 보면 “城西門 밖에 있는 大藏經板堂에 行香하여 百官을 거느리고 行香하였는데 顯宗時의 板本이 壬辰年의 蒙古兵亂으로 불탔으므로 王이 群臣들과 더불어 다시 發願하여 都監을 세워 16年만에 功이 畢하였다”<sup>12)</sup>는 기록이 있고, 東國李相國全集 卷末에 보면 “이제 分司都監이 海藏의 雕造를 끝낸 여가에 勅을 받들어 鑿板한 것이다. ……辛亥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 奉勅雕造”<sup>13)</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再雕大藏經의 刻板이 辛亥(1251)년에 끝나고 여가들 얻어서 東國李相國全集을 雕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大藏經板再雕의 節次나 經緯를 밝힐수 있는 史料는 거의 없으며 다만 각 經典의 卷末에 刻板된 刊記를 통해서 雕造作業이 진행된 과정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東國大學校譯經院에서 1976년에 발행한 高麗大藏經 影印本을 통해서 大藏經 전반에 걸친 刊記를 조사해 본 바 天函부터 奈函에 이르는 60函 600卷의 「大般若波羅密多經」이 丁酉年에 시작되어 대체로 大藏目錄三卷에 수록된 順次에 따라 雕造가 진행되어 맨 마지막의 田函부터 洞函에 이르는 一切經音義까지 丁未(高宗 34, 1249)년에 經板의 雕造가 모두 끝났으나 다만 大藏

11) 東國李相國全集. 卷 25, p. 18B.

12) 高麗史 卷 24, 高宗 38(辛亥)年 9月 壬午條.

13) 東國李相國全集. op. cit. p. 572.

目錄三卷만이 다음해인 戊申年에 雕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大藏經板再雕의 상항을 年度別로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再雕大藏經의 年度別 刻板卷數

刻 板 年 度	刻板卷數	分司刻 板卷數	刻 板 年 度	刻板卷數	分司刻 板卷數
高宗 23(丙申, 1236)			高宗 31(甲辰, 1244)	1841	227
高宗 24(丁酉, 1237)	117		高宗 32(乙巳, 1245)	768	1
高宗 25(戊戌, 1238)	513		高宗 33(丙午, 1246)	480	21
高宗 26(己亥, 1239)	301		高宗 34(丁未, 1247)	206	20
高宗 27(庚子, 1240)	291		高宗 35(戊申, 1248)	3	
高宗 28(辛丑, 1241)	321		高宗 36(己酉, 1249)		
高宗 29(壬寅, 1242)	371		高宗 37(庚戌, 1250)		
高宗 30(癸卯, 1243)	1348	260	高宗 38(辛亥, 1251)		總 529卷

이상의 表에 나타난 전체의 卷數中에서 약 500 卷內外는 卷末에 刊記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前後卷의 刊記를 미루어 推定하였기 때문에 각 年度別 刻板卷數는 精確한 숫자라고 말할수는 없다. 특히 和下函에 수록된 四分律中 第 10 卷, 第 15 卷, 第 16 卷 등의 경우와 같이 刊記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別面이 필요할 경우 이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예가 많고, 혹 본래의 經板에는 刊記가 刻板되어 있으나 影印時에 削除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大藏目錄三卷의 末尾의 田函부터 洞函까지의 10 개함에 수록된 一切經音義一百卷은 다만 第 8 卷만이 丁未年에 雕造했다는 刊記가 있을 뿐 나머지는 刊記가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 위의 表中에서 分司都監에서 刻板한 卷數는 물론 當年의 板刻卷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經板의 刊記를 통해서 보면 分司大藏都監에서 刻板된 것은 癸卯(1243)년부터 丁未(1247)年 사이에 나타나므로 癸卯(1243)年에 分司大藏都監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癸卯年과 甲辰年과 乙巳年에 刻板卷數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이 3年동안이 刻板의 절정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위에서 引用한 바와 같이 高麗史 高宗 38(辛亥)年 9 月 壬午條에 “.....王이 群臣들과 더불어 다시 發願하여 都監을 세워 16 年만에 功이 畢

하였다”고 하고 東國李相國全集 卷末에 辛亥(1251)년에 分司都監에서 海藏의 雕造를 畢한 여가에 勅을 받들어 鑲板한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全藏經의 刊記를 조사해서 나타난 바는 丁酉(高宗 24, 1237)년부터<sup>14)</sup> 戊申(1248)년까지 12년이며 都監을 설한 丙申(1236)년까지 계산해도 13년간이므로 위의 史料의 기록과는 3년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상황은 大藏目錄三卷에 수록된 正藏에 한한 것이고, 아마도 正藏 이외의 補遺藏經<sup>15)</sup>의 雕造도 함께 병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徐首生교수가 海印寺에 소장된 補遺藏經板을 실제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補遺藏經의 刻板은 甲辰(1244)년부터 시작되어 辛亥(1251)년에 雕造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이들 補遺藏經中에서 특히 宗鏡錄一百卷은 모두 丙午(高宗 33, 1246) 丁未 戊申의 3년에 걸쳐 分司大藏都監에서 開板한 것으로 刊記에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檢討하여 다시 정리해 보면 高宗 23(丙申)년에 江華에 大藏都監을 설치하여 大藏經의 校勘과 筆寫 등을 시행하고, 高宗 24(丁酉)년에 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을 선포하는 동시에 바로 大藏經을 刻板하기 시작하였으며, 高宗 30(癸卯)년부터는 南海에 分司大藏都監까지 설치하여 이때부터 刻板事業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므로서 大藏經正藏의 雕造大業은 高宗 35(戊申)년에 끝났으나, 高宗 31(甲辰)년부터 시작된 補遺藏經의 刻板이 高宗 38(辛亥)년에 끝나므로서 大藏經正藏의 雕造와 補遺藏經의 雕造까지 끝마치는데 16년이 걸린 것이다.

14) 一說에는 高宗 25年 부터 經板이 印出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착오이다. 閱賢九.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高麗大藏經(資料集 I), 서울, 高麗大藏經研究會, 佛紀 2531(1987), p. 316 참조.

15) 補遺藏經은 東國大學校譯經院에서 影印한 高麗大藏經의 卷 44~47에 수록되어 있고 補遺目錄은 卷 47의 卷末에 수록되어 있다.

16) 徐首生. 八萬大藏經과 佛教文化史上的 價値性 및 保存策. 고려대장경에 관한 학술발표회.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회. 1987, p. 48.

### Ⅲ. 大藏經板의 海印寺移運

#### A. 移運時期

江華의 禪源寺에 奉安되었던 再雕大藏經板이 언제 어떤 經路를 통해서 陝川의 海印寺에 奉安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資料를 根據로 하여 그 윤곽을 밝힐수 있을 것이다.

徐首生에 의하면 현재 海印寺의 法寶殿에는 均如大師가 著述한 「釋華嚴教分記丹通鈔 卷十(9,10張)」의 經板이 2종이 所藏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架內에 排架되어 있는(나머지 1種은 架外에 奉安되어 있음) 經板의 刻板本文部 左便의 欄外에 다음과 같은 陰刻文이 있다고 한다.<sup>1)</sup>

“丁丑年出陸時에 이 經板을 잃었으므로 知識道元과 함께 願을 發하여 이 經板을(새로) 만들어 넣는다. 乙酉年(太宗 5年, 1405) 十月日 首座冲玄”

한편 金映遂에 의하면;

“지금 海印寺 板殿에 積置된 散板中에 「丁丑年 出水時 此板闕失 而與道人 同願 開板入上」이라고 板之輪郭에 陰刻된 散板이 한個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을 解說하자면 李太祖六年丁丑에 經板이 江華島(水)로 부터 나올(出)적에 此板을 遺失하였던 것인데 道人何某와 같이 願을 發하여 다시 板을 開刻하여 入上한다는 것이다.”

라고 한다.<sup>2)</sup>

이상 두 사람의 말은 필경 동일한 내용인데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徐首生은 “出陸時”, “知識道元”이라고 했는데, 金映遂는 “出水時”, “道人”이라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海印寺에

1) 徐首生. op. cit., p. 49.

均如大師著 「釋華嚴教分記丹通鈔卷十(10張)

(丁丑年出陸時此板闕失而與知識道元同願開板入上乙酉十月日首座冲玄)

2) 金映遂. 華嚴思想의 研究. 白性都博士頌壽紀念 佛教學論文集. 서울, 東國大學校, (1959). p. 21.

두번이나 찾았으나 공교롭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하튼 이 記錄을 면밀히 檢討해 보면 몇가지 疑問이 提起될수 있다.

첫째로 이 기록에서 “丁丑年”은 朝鮮 太祖 6年(1397)으로 推定되는데 李朝實錄의 太祖 7年(1398, 戊寅) 五月十日條에”

“龍山江에 幸次하셨다. 大藏經을 江華의 禪源寺에서 배로 옮겼다,……隊長과 副隊長 등 二千名으로 하여금 大藏經板을 支天寺에 輸送하게 했다”<sup>3)</sup>

하는 正史의 기록이 있고, 같은 李朝實錄의 定宗元年(己卯, 1399) 正月 初九日條에 ;

“慶尙監司에게 命하여 海印寺에서 藏經을 印出하는 僧徒들에게 食糧을 供給케 하는데 太上王이 私財로 大藏經을 印成하고자 하니 東北百(威鏡道)에 조와 콩 540石을 端川 吉州의 두 고을에 있는 倉庫에 納입하고 그것으로 海印寺 근처 고을에 있는 쌀·콩을 그 數호만큼 交換케 하였다”<sup>4)</sup>

하는 기록이 있으니, 이를 보면 太祖 7年(戊寅, 1398) 5월에 支天寺로 옮겨졌던 大藏經板은 필경 바로 그해에 다시 海印寺로 옮겨져서 그 다음해 定宗元年(1399) 正月初에 大藏經印出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더구나 金映遂는 “江華經板이 江華島로 부터 出發하여 李太祖七年 戊寅五月 初九日 龍山江에 到着하여 一宿하고 李太祖의 餞送을 받으면서 龍山江을 出發하여 華嚴宗總本寺인 支天寺之海印寺에 至하여 奉安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sup>5)</sup> 그렇다면 위의 기록에서 “丁丑年”은 大藏經을 江華의 禪源寺에서 배로 龍山의 支天寺로 옮겼던 戊寅年(太祖 7年, 1398) 보다 1년전인데 어찌하여 丁丑年에 出陸 또는 出水했다고 기록했을까? 만약 江華의 禪源寺에서 배가 出發한 것을 出陸이라고 인정하고 계산해도 經板을 船積해서 龍山까지 오는데 5개월 이상이 걸릴 리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丁丑年”은 그

3) 太祖康獻大王實錄. 卷第 14, p.2A. 太祖 7(1398)年五月十日(丙辰), 12日(戊午)條

4) 定宗恭靖大王實錄. 卷第 1, p.2A(定宗元年(1399) 1月 9日條.

5) 金映遂, 華嚴思想의 研究. 白性都博士頌壽紀念 佛敎學論文集. 서울, 東國大學校. 4292(1959) p.22.

다음해인 戊寅年(1398)을 잘못 認識하여 그렇게 誤記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經板의 陰刻은 乙酉年(1405)에 기록한 것이고 大藏經板을 運送했다고 하는 丁丑年(1397)이나 戊寅年(1398)은 7年 또는 8年전의 사실로서 이를 推定하는데 1年 정도의 차이는 흔히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위에서 말한 釋華嚴教分記丹通鈔卷十 중에서 9·10張이 앞뒤로 雕刻된 經板의 欄外에 “이 經板이 없어져서 새로 만들어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또하나의 같은 經板이 架外에 奉安되어 있을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大藏經板이 海印寺로 옮겨진 다음해인 定宗元年(1399) 正月에 王命에 의해서 大藏經이 印出되었는데 이 經板은 續藏經이기 때문에 印出되지 않았는지? 또는 印出되었어도 이 經中の 9張과 10張만은 缺印되었는지? “丁丑年出陸時에 없어졌다”고 하는 이 經板은 出陸時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定宗元年에 大藏經을 印出한 다음에 잘못 챙겨서 없어졌다가 乙酉年(1405)에 이를 새로 刻板하여 넣은 다음 어느때에 이의 原經板을 찾은 것이 아닌지? 그리하여 架外에 奉安된 經板이 바로 “丁丑年出陸時에 없어졌다”고 하는 그 問題의 經板이 아닌지? 筆者는 이 後者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 B. 移運經路

그동안 學界에서는 大藏經板의 移運行路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異說이 流行하고 있었던 것이다. 第一說은 高宗 開板當時에 經板두벌을 彫造하여서 한벌은 江華에 奉安하였고 또 한벌은 海印寺에 奉安하였던 것인데 江華것은 支天寺로 간 뒤에 없어진 것이고 海印寺것은 지금까지 保存된 것이라는 說이고, 第二說은 支天寺로 輸送된 江華板이 언제 移轉된 것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支天寺로 갔던 江華板이 다시 後日에 海印寺로 移來한 것이란 說이다. 그러나 金映遂는 이상 二種說에 대하여 이것을 모두 부인하고 江華板이 직접 海印寺로 移安된 것이라고 단정한다.<sup>6)</sup>

6) Ibid. p. 21.



그리고 또한 金映遂는 大藏經板의 移運經路에 대하여 “李太祖 七年五月에 이 大藏經板 全部를 배에다가 싣고 서울의 龍山江을 經由하여 忠州로 溯上하여 거기서 上陸하여 陸駄로 慶尙道龍宮에 이르러 다시 船便으로 洛東江을 順流하여 高寧 開浦라는 浦口에 이르러 下陸하여 다시 陸駄로 三災不到處라고 世稱하는 華嚴宗大刹 陝川海印寺에 移藏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sup>7)</sup> 아마도 이러한 전제하에 海印寺高麗大藏經研究會는 大藏經刊行 736주년인 1987년 10월 11일 冊의날 제정을 紀念하여 高麗大藏經移運의 길을 찾아서 서울을 출발—江華島禪源寺—서울 支天寺—한강 광나루—장호원—忠州—문경새재—상주 낙동—고령(개진 장경포)—분기—海印寺經板殿 까지 踏查하였다.<sup>8)</sup>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海印寺의 法寶殿에 소장된 均如大師의 釋華嚴教分記丹通鈔 卷十의 經板 欄外에 새겨진 “丁丑年出陸時”라는 기록에서 보면 大藏經板이 海印寺까지 輸送된 經路는 陸路(물론 海路와 陸路를 겸했으나)가 아니라 海路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만약 陸路로 運送되었다면 “出陸時”가 아니라 “移安時”나 “移運時”나 “運送時” 또는 “輸送時”라고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의 事由로는 海印寺高麗大藏經研究會에서도 제시한 바<sup>9)</sup>와 같이 海印寺에서 불과 10餘 km 떨어진 慶北高靈郡開津面開浦里 앞을 흐르는 洛東江 上流의 江邊을 속칭 藏經浦 또는 장경나루라고 하는데 이곳은 南海에서 洛東江 河口를 통하여 荷物船이 자유로 왕래했던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藏經浦라는 속칭은 분명 藏經板의 移運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藏經浦는 大藏經板을 실은 배가 西海와 南海를 거쳐 洛東江河口를 통해서 이곳 開浦里까지 와서 大藏經板을 荷役하고 여기에서 海印寺까지 陸路로 運送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藏經浦라는 地名이 생긴 것으로 推定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推定한 바를 다시 整理해서 말한다면 江華의 禪源寺에 奉安되었던 大藏經板은 太祖 7(戊寅, 1398)年 五月初에 배에 실려 漢江으로 들어와

7) Ibid. p. 20.

8) 해인사고려대장경연구회. 책의날 제정기념 고려대장경에 관한 학술발표회. (서울) p. 3, p. 55 참조.

9) 해인사고려대장경연구회. 고려대장경에 관한 학술발표회. 1987, p. 3, p. 56.

龍山에서 支天寺로 옮겨졌으나 바로 그해(太祖 7年)에 다시 龍山에서 배에 실려 西海와 南海를 돌아 藏經나루를 거쳐서 海印寺에 奉安되었으며 다음해인 定宗元年(1399 乙卯) 正月初부터 海印寺에서 大藏經을 印出하도록 王命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IV. 再雕大藏目錄의 構成

本考의 第Ⅱ章에서 論及한 바있는 「校正別錄」을 통해서 보면 현재 海印寺 大藏殿에 소장된 再雕大藏經은 주로 高麗初雕大藏經을 바탕으로 하여 宋의 開寶勅板大藏經과 契丹大藏經을 대조하여 校勘하고, 大藏目錄도 또한 初雕의 大藏目錄을 바탕으로 주로 開元釋教錄<sup>1)</sup>과 續貞元釋教錄<sup>2)</sup>을 對校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初雕大藏目錄에 대해서는 이미 考究된 바<sup>3)</sup>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分類體系와 書誌記述法에 대해서는 論外로 하고 다만 初雕大藏目錄과 再雕大藏目錄과의 관계 및 再雕大藏目錄과 종래의 唐宋代의 주요 佛典目錄과의 관계만을 밝혀 보고자 한다.

##### A. 初雕大藏目錄과 再雕大藏目錄

校正別錄을 살펴 보면 再雕大藏目錄中 天函부터 更函까지는 주로 初雕大藏目錄을 바탕으로 이에 添削을 加해서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4)</sup> 그리하여 再雕大藏目錄을 이미 復元된 初雕大藏目錄 및 校正別錄과 대조해 보면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이들을 相互對照하여 우선 再雕時에 追加編入된 經典과 제거된 經典을 밝혀보고자 한다.

##### (1) 再雕時에 追加編入된 經典

「校正別錄」의 鞠函條에서 보면 “이것은 丹藏의 「月燈三昧經」으로 先公이

1) 本考의 第Ⅱ章 B項 p.150 참조.

2) 〃 p.150 참조.

3) 鄭駁諫.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第2輯. 1987, pp.3~108.

4) Ibid. pp.36~56 참조.

譯한 것인데 이의 國宋二藏의 經文과는 文義가 아주 달라서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丹藏이 곧 진짜 先公이 譯한 「月燈三昧經」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 丹藏을 取해서 바로잡는다”<sup>5)</sup>고 하였다. 이를 보면 初雕版의 「大藏目錄」의 翰函에 「月燈三昧經一卷」 宋沙門釋先公譯의 經典이 수록되어 있는데 再雕時에 이와 동일한 經名과 譯者名으로 되어 있으면서 內容이 아주 다른 契丹本이 있어서 이를 추가편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로 養函條; “(佛說)彌勒下生成佛經」 義淨譯은 宋本에는 없고 丹本에는 있어서 이제 還收入藏한다. 開元錄을 살펴보니 彌勒下生經은 前後 6譯이 있는 바 3譯은 남아 있고 3譯은 逸失했는데 이 丹本은 역시 남아 있는 3譯中의 하나이다. 宋藏에 이 經典이 없는 것은 그것을 逸失한 것이다. 이제 丹藏에서 얻어서 이를 편입시킨다”<sup>6)</sup>고 하였다. 이 「彌勒下生成佛經」도 初雕 「大藏目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再雕時에 契丹本에서 편입시킨 것이다.

셋째로 知函條; “最勝燈王如來經(丹本) 闍那彌多譯. 이 經의 이 譯本은 宋藏에서는 없어졌다. 이제 丹藏에서 얻어서 편입시킨다.”<sup>7)</sup>고 한다. 여기에서 “宋藏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 初雕 「大藏目錄」에도 수록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그 理由는 최초의 初雕大藏經은 北宋의 官版大藏經을 거의 전부 도입하여 이를 底本으로 그대로 雕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最勝燈王如來經」도 初雕 「大藏目錄」에 수록되지 않았던 것을 再雕時에 새로 편입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로 詩函條; 「蘇悉地(羯羅)供養法三卷」 輸波迦羅唐言善無畏譯. “丹藏에서는 이를 「蘇悉地羯羅經」이라고 하는데 經名도 대체로 같지 않지만 文章

5)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高麗大藏經. v. 38. p. 522 翰函, 月燈三昧經條에 (此是丹藏月燈三昧經, 先公譯者而彼國宋二藏之經, 文義迥異, 未知孰是. …即知眞是先公所譯月燈經矣, 故今取之爲正).

6) Ibid. v. 38. p. 527(養函; 彌勒下生成佛經, 義淨譯, 宋無丹存, 今還收入藏, 按開元錄彌勒下生經, 前後六譯, 三存三失, 而此本亦在三存之一也, 則宋藏無此經者失之耳, 今得於丹藏而編入之).

7) Ibid. v. 38. p. 530, 531(知函; 此經此本, 宋藏失之, 今得丹藏而編入).

역시 크게 다른데 譯者는 한사람이다. 이제 丹藏의 經을 살펴본 즉 國本 宋本중에는 始終 모두 供養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제 目錄으로서는 비록 그 상세한 文義是非가 없으나 後世 사람이 譯(集)者를 거짓으로 할까 봐 丹藏에 의거하여 兩者를 俱存한다”<sup>8)</sup>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經典도 역시 初雕의 「大藏目錄」에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再雕時에 丹藏本에서 편입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로 命函의 「大乘法界無差別論一卷」은 再雕의 「大藏目錄」에 “丹藏賢首疏釋本”<sup>9)</sup>이라고 註記가 있고 「校正別錄」에는 “이 二藏(再雕大藏目錄에 동일한 經名)의 2 經이 수록되어 있음)은 이른바 「法界無差別論」 提雲般若譯이다. 이제 「開元錄」과 賢首疏를 살펴본 즉 이의 丹本五言二十四頌이 眞本으로서 提雲般若가 번역하고 賢首疏가 釋한 것이다. 이 「法界無差別論」은 「開元釋教錄」과 賢首疏中에 모두 單譯으로 되어 있고 國宋兩本과 이 丹本과는 文章은 비록 다르나 大義는 다른 데가 없으니 必是 「開元錄」 이후의 後代에 重譯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누가 번역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이것은 校勘이 기대되며 二藏이 곧 提雲般若의 譯이라고 하는 것은 착오이다”<sup>10)</sup>라고 校勘記가 있다. 이러한 註記와 校勘記로 보아 이 經은 再雕時에 丹本에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竟函條에서 “이 受新歲經을 살펴보면 法護譯은 國本(初雕大藏經), 宋本(宋開寶勅版大藏經) 모두 受歲經이라는 經名은 이 經(受新歲經)과는 크게 다르다. 이제 「開元釋教錄」에 의거하여 이를 검토한 바 契丹藏의 正經은 (現)容函의 受歲經이다. 이 宋藏經과 이 (現)竟函의 新歲經은 文章은 다르나 大義는 같으니 同本異譯인듯 하다. 開元錄中에서는 新歲經으로써 單譯으

8) Ibid. v. 38. p. 537(丹藏即云蘇悉地羯羅經, 名既不同. 文亦大異, 譯人一也. 今檢丹藏之經, 國宋藏中, 始終皆無供養法者…今以目錄雖無詳, 其文義非是後人僞妄集者, 故依丹藏兩俱存焉).

9) 大藏目錄.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 1976, v. 39, p. 191(中)

10)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op. cit. v. 38. p. 614, 615(容函; 此是二藏所謂法界無差別論提雲般若譯者, 今按開元錄及賢首疏, 則彼丹本五言二十四頌者, 眞是提雲般若所譯, 而賢首疏所釋者又此論錄及疏中, 並爲單譯, 而國宋兩本與彼丹本, 文雖有異, 義別無殊必是開元之後, 後代重譯也, 但未知何人之譯, 此須待勘而二藏直以此爲提雲般若之譯者錯也).

로 삼았으니……이 經을 竟函으로 옮기어 편입시킨다.<sup>11)</sup>고 하였다. 한편 容函에서 보면 「受藏經一卷」西晉三藏竺法護譯. “이 經의 丹藏은 經名이 受藏經이고 丹本에는 있으나 宋本에는 없다. ……그러므로 受新藏經을 竟函으로 옮기고 이 容函중에 丹藏의 經을 取하여 眞本으로 삼는다.”<sup>12)</sup>고 하였다. 이러한 校勘記로 보아 역시 受藏經은 再雕時에 丹本에서 편입시킨 것이 분명하다.

일곱번째로 若函條에서 보면 ; 「舍衛國王十夢經一卷」(安公失譯經今付西晉錄). 이 經을 살펴보면……이제 國宋二本은 文義가 서로 같은데 이 丹本과 宋本은 大義는 같으나 文章은 다르니 한 사람의 譯은 아닌것 같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감히 제거하고 取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丹本이 詳悉하므로 이제 兩者를 모두 수록해서 賢哲을 기다린다”<sup>13)</sup>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初雕 「大藏目錄」에 宋本을 底本으로 한 國本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再雕時에 丹本을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再雕 「大藏目錄」에는 같은 若函內에 書名이 좀 다른 同本異譯의 2經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를 다시 整理하면 아래와 같은 7經 9卷이 再雕時에 丹本에서 편입된 것이 명백하다.

〈再雕時 丹本에서 追加編入된 經典〉

- (鞠) 「月燈三昧經一卷」宋沙門釋先公譯
- (義) 「(佛說) 彌勒下生佛經一卷」大唐三藏義淨譯
- (知) 「最勝燈王如來經一卷」大隋北印度三藏闍那崛多譯
- (詩) 「蘇悉地供養法經三卷」大唐中印度三藏善無畏譯
- (命) 「大乘法界無差別論一卷」丹藏賢首疏釋本, 三藏提雲般若譯

11) Ibid. v. 38. p. 647. (國本宋本, 皆編於容函中, 以當受藏經丹藏, 則容函中, 有名受藏經者, 而與此經大別, 今依開元錄檢之, 則丹藏正是容函受藏經耳, 此宋藏經與此竟函新藏經, 文異義同, 似是同本異譯耳, 則開元錄中, 以新藏經爲單譯者…故以此經移編于竟函焉).

12) Ibid. v. 38. p. 634. (容函; 此經丹藏, 則名受藏經, 而丹有宋無, 宋藏則名受新藏經, 而宋有丹無…故移受新藏經, 編竟函此容函中, 取此丹藏經, 爲無本焉).

13) Ibid. v. 38. p. 638. (若函; 舍衛國王十夢經, 安公失譯經, 今付西晉錄, 按此經…今國宋二本, 文義相同, 此丹本與宋, 義同文異, 似非一譯, 而未知是非, 不敢去取, 然此丹本詳悉, 今且雙存, 以待賢哲).

(容) 「受歲經一卷」西晉三藏竺法護譯

(若) 「舍衛國王十夢經一卷」失譯人名丹本附西晉錄

다음으로 「校正別錄」에서 보면 俊又蜜函條에 “이 3 函中 國本(初雕大藏經)에 있는 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은 이제 검토해 보니 諸經卷中에서 藏經을 看覽하여 首尾에 있는 말을 採錄한 것으로 有益한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이제 새로 撰한 「校正別錄三十卷」으로써 그 函次를 편했다”<sup>14)</sup>고 한다.

또한 「校正別錄」에서 보면 廻漢函條에 “右 2 函中 國本(初雕大藏經)에 있는 佛名經十八卷은 이제 검토해 보니 아래의 寧晉楚函中에 있는 三十卷本과 같다. 이 1 經은 後世 사람들이 그 卷數가 다름을 보고 異經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 重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제 三十卷本이 世上에 盛行하므로 이 兩者중에서 18 卷本을 제거하고 「摩訶衍論十卷」으로써 廻函으로 삼고 「玄文論二十卷」으로써 漢函으로 삼았다”<sup>15)</sup>고 한다.

이상에서 밝힌 바를 다시 要約하면 아래와 같은 3 經 60 卷이 再雕時에 代替編入된 것이다.

〈再雕時에 代替編入된 經典〉

(回函) 「大地玄文論二十卷」馬鳴菩薩造 三藏沙門 惠諦譯

(漢函) 「釋摩訶衍論十卷」龍樹菩薩造 三藏法師 伐提摩多譯

(俊又蜜函)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三十卷」海東沙門 守其 編

한편 初雕大藏目錄과 再雕大藏目錄을 對比해 보면 再雕大藏目錄에서는 目錄의 末尾部分인 綱~何函의 法苑珠林傳一百卷을 비롯해서 田~洞函의 一切經音義一百卷까지 64 函 92 經 601 卷이 追加收錄 되어있다.<sup>16)</sup>

14)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高麗大藏經(影印本). v. 38. p. 724 (右三函中國本, 有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今檢但是標舉諸經卷中首尾之言, 於看覽藏經者, 所益無幾, 今且除之, 以新撰校正別錄三十卷編其函焉).

15) Ibid. v. 38. p. 723, 724 (廻漢函; 右二函中國本, 有佛名經十八卷者, 今檢與下寧晉楚函中三十卷, 本同是一經, 後人見其卷數有異, 認爲異經, 故重編入, 今以三十卷世所盛行故除此中十八卷者, 乃以摩訶衍論十卷, 爲廻函, 玄文論二十卷, 爲漢函云).

16) 追加收錄分의 內容은 附錄4 pp. 67~69 참조.

## (2) 再雕時에 제거된 經典

한편 校正別錄의 才函條에 보면 “國宋二藏은 이 才函 가운데 또 六字神呪王經(菩提流志譯)이 있었다.”<sup>17)</sup>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再雕大藏目錄에는 六字神呪經流志譯本 하나만 있으므로 이중 하나는 再雕大藏目錄에서 삭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校正別錄」에서 보면 孰函條에 “이函의 國本(初雕大藏經), 宋本(宋開寶勅版大藏經)에는 「佛說木槵子經」 不空譯이 있다. 이제 검토해 보니(이 經은) 앞의 竟函에 있는 木槵子經(失譯人名今附東晉錄)과 더불어 始終 다른 것이 없고, 그 文體도 같은 즉 이것은 漢晉의 譯으로서 竟函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이 函中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후에 「佛說木槵子經」과 저 竟函의 經이 다른 것이 발견되면 이 孰函中에 편입시키고자 한다.”<sup>18)</sup>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初雕의 「大藏目錄」에는 孰函中에 「佛說木槵子經」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再雕의 「大藏目錄」에서는 제거된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서도 인용된바 있으나 「校正別錄」에서 보면 俊父密函條에 “이 3函中 國本(初雕大藏經)에 있는 「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은 이제 검토해 보니 諸經中에서 藏經을 看覽하여 首尾에 있는 말을 採錄한 것으로 有益할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이제 새로 撰한 「校正別錄三十卷」으로써 그 函次를 편했다.”<sup>19)</sup>고 한다.

또한 역시 「校正別錄」에서 보면 廻漢函條에 “右 2函中 國本(初雕大藏經)에 있는 佛名經十八卷은 이제 검토해 보니 아래의 寧晉楚函中에 있는 三十卷本과 같다. 이 1經은 후세 사람들이 그 卷數의 다름을 보고 異經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重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제 三十卷本이 世上에 盛行하므로 이 兩者중에서 18卷本을 제거하고 「摩訶衍論十卷」으로써 廻函으로 삼

17)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op. cit. v. 38, p. 530(上)(才函條; 六字神呪經: 國宋二藏, 此才函中, 更有六字神呪王經菩提流志譯者).

18) Ibid. v. 38, p. 721 (孰函; 此函國宋本中, 有佛說木槵經不空譯, 自今檢與前竟函木槵子經, 失譯人名, 今附東晉錄者, 始終無異, 詳其文體, 即是漢晉之譯, 其在竟函者然矣. …故今除却此函中者, 後賢若見佛說木槵經與彼竟函之經異者, 請須編次孰函中焉).

19) Ibid., p. 724(俊父密函: 右三函中國本, 有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今檢但是標舉諸經卷中首尾之言, 於看覽藏經者, 所益無幾, 今且除之, 以新撰校正別錄三十卷編其函焉)

고 「玄文論二十卷」으로써 漢函으로 삼았다”<sup>20)</sup>고 한다. 다시 말하면 初雕大藏目錄에는 廻漢函에 「佛名經十八卷」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再雕時에 이를 제거하고 「摩訶衍論十卷」과 「玄文論二十卷」으로 대치한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를 다시 整理해 보면 아래와 같은 4經 50 卷이 再雕時에 제거된 것이다.

〈再雕時에 제거된 經典〉

- (才函) 「六字神呪王經一卷」 菩提流志譯
- (孰函) 「佛說木槎子經一卷」 不室譯
- (回漢函) 「佛名經十八卷」
- (俊父密函) 「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

**B. 再雕大藏目錄과 唐宋系の 佛典目錄**

高麗의 大藏目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끼친 目錄은 唐 開元 18(730)년에 智昇이 편찬한 「開元釋教錄」이고, 다음으로 唐貞元 10(794)년에 圓照가 편찬한 續開元釋教錄 및 南唐 保大 3(945)년에 恒安이 편찬한 續貞元釋教錄이며, 기타 北宋의 大中詳符 6(1013)년에 趙安仁 등이 편찬한 「大中詳符法寶錄」이나, 宋 景祐 3(1036)년에 呂夷簡 등이 편찬한 「景祐新修法寶錄」과도 관계가 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sup>21)</sup>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再雕大藏目錄을 이들 佛典目錄과 각각 對照分析하여 相互間에 수록된 書目的 加減狀況을 밝혀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현재의 再雕大藏經의 내용과 그 價値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開元釋教錄과의 對照分析(天函—英函)

開元釋教錄과 「大藏目錄」을 대조·분석해 보면 「大藏目錄」의 天函부터 英函까지는 대체로 「開元釋教錄」의 現藏入藏錄과 내용상 거의 일치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添削과 순서변경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日本의 小野

20) 校正別錄. 高麗大藏經 v. 38. p. 723, 724(廻漢函; 右二函中國本, 有佛名經十八卷者, 今檢舉下寧晉楚函中三十卷, 本同是一經, 後人見其卷數有異, 認爲異經, 故重編入, 今以三十卷, 世所盛行故除此中十八卷者, 乃以摩訶衍論十卷, 爲廻函, 玄文論二十卷, 爲漢函云).

21) 鄭駁諫.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第2輯 1987, pp. 30~56 참조.



玄妙는 「大藏目錄」을 “北宋官版覆刻高麗大藏經目錄”<sup>22)</sup>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말은 高麗大藏經이 北宋의 官版大藏經을 覆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目錄自體를 覆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大藏目錄」이 대체로 北宋의 官版인 開元釋教錄의 入藏錄과 일치하는 부분은 天函부터 英函까지 뿐이며, 그것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添削과 상당한 順序변경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선 現存의 再雕 「大藏目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添削의 상황을 볼 수 있다.

〈大藏目錄에 添加插入된 佛典〉

- (伐函) 「佛說般舟三昧經一卷」 後漢月氏國三藏支婁迦讖譯  
 (大函) 「大方等無想經六卷」 北天竺三藏曇無讖譯  
 (恭函) 「文殊普超三昧經三卷」 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  
 (鞠函) 「月燈三昧經一卷」 一名文殊師利菩薩十事行經  
 (養函) 「彌勒下生成佛經一卷」 大唐三藏義淨譯  
 (知函) 「寶勝燈王外來經一卷」 大隋北印度三藏闍那崛多譯  
 (悲函) 「五佛頂三昧陀羅尼經四卷」 大唐三藏菩提流志譯  
 (詩函) 「蘇悉地供養法經三卷」 大唐中印度三藏善無畏譯  
 (命函) 「大乘法界無差別論一卷」 大唐于闐三藏提雲般若譯  
       「提婆菩薩涅槃論一卷」 後魏北印度三藏菩提流支譯  
 (若函) 「舍衛國王夢見十事經一卷」 失譯人名(丹本)  
 (竟函) 「佛說受新歲經一卷」 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  
 (傳函) 「羯磨一卷」 沙門曇諦集  
 (姑函) 「毗婆娑律十卷」 沙門僧伽跋陀羅譯  
 (面函) 「舍利弗阿毗曇七卷」 姚秦三藏曇摩崛多共曇摩耶舍譯  
 (右函) 「宣律師惑通錄一卷」

(15種 43卷)

〈大藏目錄에서 漏落된 佛典〉

- (大乘經) 「大方等大集日藏經十卷」  
       「大集月藏經十卷」  
       「大方等大雲經六卷」(一名 大雲無相經)  
       「普超三昧經三卷」

22) 小野玄妙. 佛敎經典總論. 佛書解說大辭典別卷. 서울, 民族社, 1981, p. 588.

(小乘經) 「受歲經一卷」  
 「花積陀羅尼雜須經一卷」  
 (小乘律) 「一分雜羯摩四卷」

(7 種 35 卷)

다시 이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現存의 再雕 「大藏目錄」의 天函부터 英函까지는 「開元釋教錄」의 現藏入藏錄收錄分과 대비해서 15 種 43 卷이 추가로 삽입되어 있고, 반면에 7 種 35 卷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므로 日本의 常盤大定이 現存麗本(再雕本)의 天函부터 英函까지는 開元錄所收佛典 5,048 卷에 13 卷을 새로 추가<sup>23)</sup>한 것으로 評價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2) 續貞元釋教錄과의 對照分析(策函—蜜函)

義天이 쓴 寄日本諸法師求集教藏疏에 보면 “智昇이 撰한 「開元釋教錄」과 圓照가 撰한 「貞元續開元釋教錄」 등 이 兩本에 수록된 經律論 등과 宋의 新譯經論 六千來卷을 모두 다 雕造를 끝마쳤다.”<sup>24)</sup>는 記錄 때문에 再雕大藏目錄에 있어서도 開元釋教錄所收分 다음에는 으레히 續開元釋教錄所收分の 書目이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內容上으로는 그보다도 續貞元釋教錄의 所收分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sup>25)</sup>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續貞元釋教錄」에 수록된 書目を 再雕 「大藏目錄」의 策函부터 蜜函까지(43 函分)에 수록된 書目과 일일이 대조한 바 다음의 3 經 47 卷(혹 49 卷)의 經典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록되어 있고 배열의 순서도 거의 동일하다.

### 〈再雕時에 제거된 經典〉

(孰函) 「木槵經一卷」  
 (俊乂密函) 「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  
 (回漢函) 「大佛名經十六卷」(或十八卷)

다만 「續貞元釋教錄」에서 大乘經部の 끝부분에 배열되어 있던 「大方廣佛華嚴經四十卷」이 再雕의 「大藏目錄」에서는 맨 앞의 策功茂實函에 배열되어

23) 常盤大定. 大藏經雕印考. 哲學雜誌 第21號. p.116.

24) 義天. 大覺國師文集(影印本). 서울, 建國大學校 出版部, 1974, v. 14.

25) 鄭毅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第2輯. 1987, pp.43~49 참조.

있을 뿐이다.

한편 위의 書目中 木總經一卷은 初雕의 大藏目錄에는 수록되어 있었으나 再雕의 大藏目錄에서 제거되었고, 「一切經源品次錄三十卷」과 「大佛名經十六卷」도 初雕時에는 수록되어 있었으나 再雕時에 제거되는 동시에 그자리에 각각 「校正別錄三十卷」과 「摩訶衍論十卷」 및 「玄文論二十卷」으로 代替되었음은 이미 前項에서 밝힌 바와 같다.

또한 「大藏目錄」末尾의 勿多士寔函에는 「大般涅槃經三十六卷」(宋沙門 惠嚴等乃依泥洹經加之)이 初雕時부터 삽입되어 있는데, 이 經典은 종전의 어느 佛典目錄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日本의 常盤大定에 의하면 “南本”<sup>26)</sup>이라고 하는데 이 經典이 어디에서 편입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續貞元釋教錄에 수록된 佛典 이외에 再雕大藏目錄에 追加收錄된 佛典의 書目は 다음과 같다.

〈再雕時에 追加收錄된 佛典〉

- (回函) 大 宗地玄文論二十卷 馬鳴菩薩造 三藏沙門 惠諱 譯
- (漢函) 釋摩訶衍論十卷 龍樹菩薩造 三藏法師伐提摩多 譯
- (俊父蜜函)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三十卷 海東沙門 守其 編
- (勿~寔函) 大般涅槃經三十六卷 宋沙門惠嚴等乃依泥洹經加之

(3) 大中祥符法寶錄과의 對照分析(杜函—輕函)(遵函—精函)

再雕의 「大藏目錄」에는 앞에서 논급한 續貞元釋教錄에 수록된 佛典 다음에 北宋의 新譯經論이 수록될 가능성이 많고, 大中祥符法寶錄은 北宋의 新譯經論을 수록한 目錄이므로, 이를 「大藏目錄」의 書目과 일일이 대조한 바, 「大藏目錄」의 杜函부터 輕函까지의 40 函에 170 經 329 卷이 수록되어 있고, 다시 策函부터 何函까지의 65 函次나(續貞元釋教錄의 收錄分을) 뛰어 넘어서 遵函부터 精函까지의 15 函에 53 經 125 卷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大中祥符法寶錄의 書目は 大小乘의 經律論으로 體系的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비하여 大藏目錄에서는 이러한 分類體系가 전혀 없이 大小乘의 經律

26) 常盤大定. 大藏經雕印考. 哲學雜誌. 第321號, p.1167(31)

論이 마구 뒤섞여서 동일한 譯者의 經典을 한데 모아 배열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分析된 結果로 보면 顯宗 13(1022)년이나 또는 文宗 37(1083)년에 宋版新譯經論이 導入될 당시 그 完帙이 수입되지 못하고 특히 「大中祥符法寶錄」(2卷)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각각의 佛典에는 定規의 函次表示나 卷帙表示가 없었기 때문에 「大藏目錄」에 수록할 때 편찬자가 다만 동일한 譯者의 佛典은 한데 모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大中祥符錄에 수록된 하나의 經典과 末尾의 聖賢集傳部에서 다음과 같은 10종의 佛典만이 누락되고 있다.

〈再雕大藏目錄에서 漏落된 經典〉

- 「月喻經」(1部 1卷)
- 「廣大發願頌」(1部 3卷)
- 「妙覺集」(1部 5卷)
- 「法音前集」(1部 7卷)
- 「箋注聖教序」(1部 3卷)
- 「大宋高僧傳」(1部 30卷)
- 「僧史略」(1部 3卷)
- 「景德傳燈錄」(1部 33卷)
- 「大宋大中祥符法寶錄」(1部 22卷)
- 「應元崇德仁壽慈聖皇太后發願文」(1卷)

또한 「大藏目錄」중 「大中祥符錄」所收分이 열거된 中間에 다음과 같은 3가지 經典이 삽입되어 있다.

〈再雕大藏目錄에 追加挿入된 經典〉

- (槐函) 「大威德金輪佛項熾盛光如來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一卷」
- (振一修函) 「新集藏音義隨函錄三十冊(漢中沙門可洪撰)」
- (霸一何函) 「法苑珠林傳一百卷(西明寺沙門釋道世撰)」

여기에서 「大威德金輪佛項熾盛光如來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은 大藏目錄에 는 “施護譯”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誤記이고 실제로는 唐代의 失譯(譯

者未詳)이다.<sup>27)</sup> 그리고 이 經은 宋本系에는 없으므로 契丹本일 가능성이 많으나 小野玄妙가 제시한 「契丹大藏經目錄」(私案)<sup>28)</sup>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新集藏音義隨函錄」은 契丹大藏經目錄의 배열이 주로 이에 따르면 있는 것으로 이것이 契丹本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sup>29)</sup> 역시 小野玄妙의 契丹大藏經目錄(私案)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法苑珠林傳」은 唐의 高宗總章元年(668)에 완성되었으며 佛教百科事典의 구실을 한다고<sup>30)</sup> 하는데 宋代의 어느 目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 (4) 景祐新修法寶錄과의對照分析(精函—并嶽函)

景祐新修法寶錄에 대해서는 이미 밝 힌바<sup>31)</sup> 있거니와 이것은 宋景祐 3(1036)년에 呂夷簡 등이 勅命을 받들어 撰述한 北宋의 新譯經論의 目錄이다. 따라서 景祐新修法寶錄에 수록된 佛典書目과 再雕의 「大藏目錄의 佛典書目을 대조해 본 바 景祐新修法寶錄에 수록된 佛典들이 거의 모두 「大藏目錄의 精函부터 并嶽函까지(15函, 21經 161卷)에 수록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東土(中國)聖賢著撰, 高僧傳, 儒臣著述 등이 누락 혹은 삭제되어 있다.

#### 〈大藏目錄에서 漏落된 佛典〉

「妙覺秘詮」(2卷)

「法音前集指要」(3卷)

「法釋典文集」(1部 30卷) 總錄(1卷)

「注四十二章經」(1卷)

「注遺教經」(1卷)

「百緣經序」(1首)

「法音後集」(3卷)

「注三寶讚」(3卷)

「景祐天竺字源序一首」

「天聖廣燈緣序一首」

27) 高麗大藏經. 第34卷, p. 95 참조.

28) 小野玄妙. 契丹(遼)官版大藏經目錄. 佛教經典總論(佛書解說大辭典別卷), 서울, 民族社, 佛典刊行會, 1981, pp. 689~703.

29) Ibid. pp. 690, 691 참조.

30) 高麗大藏經(影印本), 서울, 東國大學校譯經院, 1976, v. 48 (總目錄解題索引) p. 941 참조.

31) 鄭駉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第2輯. 1987, pp. 49~51 참조.

「景祐新修法寶錄序一首」

「注發願文」(3卷)

「新譯經音義」(70卷)

「天聖釋教總錄」(3卷)

「大藏經名禮讚法」(1卷)

「景祐天竺字源」(7卷)

「釋教總錄序一首」

「傳燈王英集」(15卷)

「天聖廣燈錄」(31卷)

「懷問三往天竺記一篇」

「傳法院碑銘一篇」

「景祐新修法寶錄」(21卷)

한편 景祐新修法寶錄의 書目은 다음과 같이 大小乘經律論으로 分類되어 體系的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大藏目錄에서는 이러한 分類體系가 없이 大小乘의 經律論이 마구 뒤섞여 배열되어 있다.

景祐新修法寶錄	—	大乘經
		大乘律
		大乘論
		小乘經
		小乘律
		西方聖賢集傳
		東大聖著撰
		高僧著述
		— 儒臣著述

이상과 같은 結果로 보면 文宗 37(1083)년이나 또는 그 이후에 宋板 新譯經論이 導入될 당시 그 完帙이 輸入되지 못하고 특히 景祐新修法寶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再雕大藏目錄에 수록할 때 편찬자가 임의로 적절히 배열했던 것으로 推定되며 다만 역자가 동일한 佛典은 한데 모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5) 秦函부터 洞函까지에 수록된 佛典

再雕大藏目錄에는 이상에서 조사된 佛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14經 245卷의 佛典들이 大藏目錄 末尾의 秦函부터 洞函까지에 수록되어 있다.

〈再雕時에 追加된 經典〉

	(漢譯年代)
(精函)「金光明經四卷」北涼三藏曇無讖 譯	(414—426)
(秦函)「施設論七卷」法護 譯	(1001—1041)
(宗一禪函)「大乘菩薩藏正法經四十卷」法護 譯	(1004—1058)
(主云函)「大乘集菩薩學論二十五卷」	
西天譯經三藏日稱 譯	(1004—1058)
(亭函)「大乘入諸佛境界智光明莊嚴經五卷」	
宋北天竺三藏 施護 譯	(1004—1058)
「六趣輪廻經一卷」日稱 譯	(960—1126)
「十不善業道經一卷」同 譯	(960—1126)
「尼輒子問無我義經一卷」同 譯	(960—1127)
「事師法頌一卷」同 譯	(960—1127)
(鴈函)「諸法集要經十卷」同 譯	(960—1126)
(門函)「福蓋正行所集經十二卷」同 譯	(960—1127)
(紫塞函)「父子合集經二十卷」同 譯	(960—1126)
(雞函)「續一切經音義十卷」沙門 希麟 撰	(960—1127)
(田一洞函)「一切經音義一百卷」翻經沙門 慧林 撰	(807)

이상에서 열거한 書目은 현재까지 조사된 唐宋系의 어느 佛典目錄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리하여 이들은 혹 契丹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結 論

이상에서 밝힌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符仁寺에 소장되었던 初雕大藏經板이 壬辰年의 蒙古兵亂으로 焚滅되었고, 蒙古兵의 侵掠은 아직도 지속되므로 初雕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佛力을 빌어서 다시 外敵의 侵掠을 물리치고 國家의 安全을 祈願하기 위해서 高麗大藏經을 再雕하게 된 것이다.

2. 大藏經板을 再雕하기 위해서 高宗 23(丙申, 1236)년에 大藏都監을 설치

하는 동시에, 初雕大藏經을 開寶勅版大藏經 및 契丹大藏經과 對校하여 校勘하고, 底本을 筆寫하고, 刻板을 위한 木材를 준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해인 高宗 24(丁酉, 1237)년에는 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을 宣布하는 동시에, 이해부터 실제로 大藏經板의 雕造事業이 추진되었다. 또한 7년후인 高宗 30(癸卯, 1243)년에는 이 事業을 더욱 대대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南海에는 分司大藏都監을 설치하여 여기에서도 상당량의 藏經을 刻板하게 되었다.

4. 高麗大藏經의 刻板은 高宗 24(丁酉, 1237)년에 시작하여 高宗 35(戊申, 1248)년에 끝났으나, 高宗 31(甲辰, 1244)년부터는 補遺藏經의 刻板이 시작되어 高宗 38(辛亥, 1251)년에 끝났으므로 결국 高麗大藏經의 正藏과 補遺藏經까지 雕造하는데 16년이 걸린 것이다.

5. 再雕된 大藏經板은 江華의 禪源寺에 140餘年동안 奉安되었으나 朝鮮太祖 7(1398, 戊寅)년 5월에 禪源寺에서 船便으로 漢江을 통하여 龍山을 거쳐 漢江을 거슬러 忠州까지 가서 여기에서 陸路로 慶尙道龍宮에 이르러 다시 船便으로 高靈開浦를 거쳐 海印寺에 移運되었다는 說이 가장 有力하다. 그러나 船便으로 西海와 南海를 돌아서 洛東江을 통하여 慶北高靈郡開律面開浦里의 藏經浦를 거쳐서 海印寺에 移運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6. 再雕大藏經은 주로 初雕大藏經을 바탕으로 하여 宋의 開寶勅版大藏經과 契丹大藏經을 相互對照하여 校勘하고, 大藏目錄도 또한 初雕의 大藏目錄을 바탕으로 주로 開元釋教錄과 續貞元釋教錄을 對校하여 편찬한 것이다.

7. 再雕大藏目錄중 天函부터 更函까지 初雕大藏目錄과 對比해 보면 再雕大藏目錄에는 月燈三昧經을 비롯하여 7經 9卷의 契丹本이 追加編入되었고, 반면에 太宗地玄文論을 비롯한 3經論 60卷이 代替編入되었으며, 更函 이후의 末尾까지에는 法苑珠林傳을 비롯한 92經論 601卷이 追加收錄되어 있다. 한편 再雕時에 除去된 經典은 六字神呪王經을 비롯하여 4經 50卷이다.

8. 再雕大藏目錄의 天函부터 英函까지를 開元釋教錄과 對比해 보면 大藏目錄은 대체로 開元釋教錄의 入藏錄에 준하여 편찬되어 있으나 佛說般舟三昧經을 비롯한 15經論 43卷이 添加挿入되어 있고, (이중에는 月燈三昧經 등 7



經論 9 卷의 契丹本이 포함되어 있음). 반면에 大方等大集日藏을 비롯한 7 經論 35 卷이 漏落되어 있다.

9. 再雕大藏目錄의 策函부터 蜜函까지를 續貞元釋教錄과 對比해 본 바 大藏目錄은 續貞元釋教錄의 배열순에 따라서 편찬되었으나 大藏目錄에는 續貞元釋教錄의 수록분 이외에 木槌子經을 비롯한 3 經 47 卷(혹 49 卷)이 제거되었고, 반면에 大宗地玄文論을 비롯한 4 經論 96 卷이 追加編入되어 있다.

10. 再雕大藏目錄을 大中祥符法寶錄과 對比해 본 바 大藏目錄은 大中祥符法寶錄의 배열체계와는 전혀 다르게 經律論이 마구 뒤섞여 있으나, 大藏目錄의 杜函부터 輕函까지의 40 函에는 170 經論 329 卷이 수록되어 있고, 다시 遵函부터 精函까지의 15 函에 53 經論 125 卷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大藏目錄에는 大中祥符錄의 末尾部分의 10 種의 經錄 108 卷이 漏落되어 있고, 반면에 法苑珠林傳을 비롯한 3 經論 131 卷이 追加挿入되어 있다.

11. 再雕大藏目錄을 景祐新修法寶錄과 對比해 본 바 景祐新修法寶錄에 수록된 주요 佛典들이 모두 大藏目錄의 精函부터 并嶽函까지의 18 函에 21 經論 161 卷이 수록되어 있으나 大藏目錄에서는 分類體系가 없이 經律論이 마구 뒤섞여 있고, 또한 妙覺秘詮 등 聖賢集傳部의 22 種 172 卷이 漏落되어 있다.

12. 大藏目錄末尾의 秦函부터 洞函까지에는 金光明經을 비롯한 14 經論 237 卷의 佛典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들 經論은 현재까지 조사된 唐宋系의 어느 佛典目錄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혹 契丹本일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13.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再雕의 「大藏目錄」에는 北宋大藏經의 總目錄인 開元釋教錄에 수록된 經典 거의 전부와 그 續編目錄인 續貞元釋教錄, 北宋의 新譯經目錄인 大中祥符法寶錄과 景祐新修法寶錄에 수록된 經典 전부가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契丹本大藏經中에서도 적어도 20 여종에 근 300 卷이 추가수록되어 있고, 또한 宋本이나 契丹本系에는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傳來되어온 經典이 15 種 43 卷이나 더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再雕의 高麗大藏經은 漢譯佛經 전체를 총망라한 總體的인 佛典大藏經이라고 말할수 있다.

## A study on the second edition of Koryo Dae-Jang-Mock-Lock

By Jeong Pil-mo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the procedure of the carving of the tablets of the second edition of Dae-Jang-Mock-Lock(再雕大藏目錄), the time and the route of the moving of the tablets into Haein-sa, and the contents and the system of it.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the second edition of Dae-Jang-Mock-Lock. But the other closely related materials such as restored first edition of the Dae-Jang-Mock-Lock, Koryo Sin-Jo-Dae-Jang-Byeol-Lock(高麗新雕大藏校正別錄), Kae-Won-Seok-Kyo-Lock(開元釋教錄), Sok-Kae-Won-Seok-Kyo-Lock(續開元釋教錄), Jeong-Won-Sin-Jeong-Seok-Kyo-Lock(貞元新貞釋教錄), Sok-Jeong-Won-Seok-Kyo-Lock(續貞元釋教錄), Dea-Jung-Sang-Bu-Beob-Bo-Lock(大中祥符法寶錄), and Kyeong-Woo-Sin-Su-Beob-Bo-Lock(景祐新修法寶錄), are also analysed and closely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econd edition of Tripitaka Koreana(高麗大藏經) was carved for the purpose of defending the country from Mongolia with the power of Buddhism, after the tablets of the first edition in Buin-sa(符仁寺) was destroyed by fire.

2. In 1236, Dae-Jang-Do-Gam(大藏都監) was established, and the preparation for the recarving of the tablets such as comparison between the content, of the first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Gal-Bo-Chik-Pan-Dae-Jang-Kyeong and Kitan Dae-Jang-Kyeong, transcription of the original

copy and the preparation of the wood, etc. was started.

3. In 1237 after the announcement of Dae-Jang-Gyeong-Gak-Pan-Gun-Sin-Gi-Go-Mun(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 the carving was started on a full scale. And seven years later (1243), Bun-Sa-Dae-Jang-Do-Gam(分司大藏都監) was established in the area of the South to expand and hasten the work. And a large number of the tablets were carved in there.

4. It took 16 years to carve the main text and the supplements of the second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the main text being carved from 1237 to 1248 and the supplement from 1244 to 1251.

5. It can be supposed that the tablets of the second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stored in Seon-Won-Sa(禪源寺), Kang-Wha(江華), for about 140 years, was moved to Ji-Cheon-Sa(支天寺), Yong-San(龍山), and to Hae-In-Sa(海仁寺) again, through the west and the south sea and Jang-Gyeong-Po(藏經浦), Go-Ryeong(高靈), in the autumn of the same year.

6. The second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was carved mainly based on the first edition, comparing with Gae-Bo-Chik-Pan-Dae-Jang-Kyeong(開寶勅板大藏經) and Kitan Dae-Jang-Kyeong(契丹大藏經). And the second edition of Dae-Jang-Mock-Lock also compiled mainly based on the first edition with the reference to Kae-Won-Seok-Kyo-Lock and Sok-Jeong-Won-Seok-Kyo-Lock.

7. Comparing with the first edition of Dae-Jang-Mock-Lock, in the second edition 7 items of 9 volumes of Kitan text such as Weol-Deung-Sam-Mae-Gyeong-Ron(月燈三昧經論) are added and 3 items of 60 volumes such as Dae-Jong-Ji-Hyeon-Mun-Ron(大宗地玄文論) are substituted into others from Cheon chest(天函) to Kaeng chest(更函), and 92 items of 601 volumes such as Beob-Won-Ju-Rim-Jeon(法苑珠林傳) are added after Kaeng chest. And 4 items of 50 volumes such as Yuk-Ja-Sin-Ju-Wang-

Kyeong(六字神呪王經) are omitted in the second edition.

8. Comparing with Kae-Won-Seok-Kyo-Lock, Cheon chest to Young chest(英函) of the second edition is compiled according to Ib-Jang-Lock(入藏錄) of Kae-Won-Seok-Kyo-Lock. But 15 items of 43 volumes such as Bul-Seol-Ban-Ju-Sam-Mae-Kyeong(佛說般舟三昧經) are added and 7 items of 35 volumes such as Dae-Bang-Deung-Dae-Jib-Il-Jang-Kyeong(大方等大集日藏經) are omitted.

9. Comparing with Sok-Jeong-Won-Seok-Kyo-Lock, 3 items of the 47 volumes (or 49 volumes) are omitted and 4 items of 96 volumes are added in Caek chest(策函) to Mil chest(蜜函) of the second edition. But the items are arranged in the same order.

10. Comparing with Dae-Jung-Sang-Bo-Beob-Bo-Lock, the arrangement of the second edition is entirely different from it. But 170 items of 329 volumes are also included in Doo chest(杜函) to Kyeong chest(輕函) of the second edition, and 53 items of 125 volumes in Jun chest(遵函) to Jeong chest(精函). And 10 items of 108 volumes in the last part of Dae-Jung-Sang-Bo-Beob-Bo-Lock are omitted and 3 items of 131 volumes such as Beob-Won-Ju-Rim-Jeon(法苑珠林傳) are added in the second edition.

11. Comparing with Kyeong-Woo-Sin-Su-Beob-Bo-Lock, all of the items (21 items of 161 volumes) are included in the second edition without any classificatory system. And 22 items of 172 volumes in the Seong-Hyeon-Jib-Jeon(聖賢集傳) part such as Myo-Gak-Bi-Cheon(妙覺秘傳) are omitted.

12. The last part of the second edition, Joo chest(奏函) to Dong chest(洞函), includes 14 items of 237 volumes. But these items cannot be found in any other former Buddhist catalog. So it might be supposed as the Kitan texts.

13. Besides including almost all items in Kae-Won-Seok-Kyo-Lock and all items in Sok-Jeong-Won-Seok-Kyo-Lock, Dae-Jung-Sang-Bo-Beob-Bo-Lock, and Kyeong-Woo-Sin-Su-Beob-Bo-Lock, the second edition of Dae-Jang-Mock-Lock includes more items, at least 20 items of about 300 volumes of Kitan Tripitaka and 15 items of 43 volumes of traditional Korean Tripitake that cannot be found any others. Therefore, Tripitaka Koreana can be said as a comprehensive Tripitaka covering all items of Tripitakas translated in Chinese character.